

# 신안에 동양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

동양건설산업-郡, 1500억 규모 태양광·풍력발전소 조성 MOU

87MW급… 내년 상반기 착공 2014년 완공

동양건설산업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신안군 지도를 태천리 일대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총 87MW 규모의 동양 최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동양건설산업과 신안군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54MW급 육상·해양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발전사업자에 의



상 풍력발전소는 연간 10만8000 M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87MW급으로 동양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구축된다.

주가 조성되는 54MW급 육상·해

해 추진되는 이 복합단지는 2013년 상반기 착공, 2014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신안군에 24MW급 추적식 태양광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9MW급 풍력발전소는 오는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MOU로 국내에서 처음 상용화되는 27MW급 해상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주변 유휴부지에 조성되는 27MW급 육상 풍력발전소가 추가 건설된다.

주가 조성되는 54MW급 육상·해

회사측은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약 5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3000㎿의 유류 대체효과와 자동차 5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별도의 자연 훼손없이 기존 태양광발전소 안팎의 유휴부지와 인접 해안에 풍력발전소를 건설, 친환경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 시교육청·산하 교육청 청렴도 낙제점

### 나종천 시의원 지적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의 청렴도가 밀바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남구 3) 의원은 26일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장豬국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 청렴 성적표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가혹하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청렴을

앞세워 부패와 전쟁하고 감사 대응이 훨씬 더 나았지만 청렴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교육청별 청렴도 평가에서 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7위에서 2011년 11위로 4계단 추락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11월 취임했다. 특히 동·서부 지역교육청 2곳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2009년 각 38위와 37위에서 2010년 각 168위, 165위로, 지난해는 163위와 165위

로 사상 팔찌였다.

나 의원은 “지역교육청의 청렴도는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완전 바닥 등급”이라며 “광주시민에게는 망신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창피와 부끄러움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과 인사업무 등에서 취약,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마련,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시교육청 515억대 유휴재산 수년째 방치

### 허문수 시의원 지적

광주시 교육청이 515억원대 유휴재산을 수년째 방치한 채 매각이나 활용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허문수(민주·광산 2) 의원은 26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안이한 유휴재산 관리대책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육청의 유휴재산

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총 13건 9750㎡로, 무려 515억원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 중 유휴재산으로 지정된지 5년 이상된 시설이 구 분당초·분당고교와 구 삼도남초교 등 7개소나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특히 “구 과학연구원과 광주여고, 과학교 등 도심 유휴재산은 총 평가액이 300억원 대에 달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둑여 있다”며 유휴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활용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휴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민간 매각 보다는 공공목적 매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전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두환 경호동  
사용료 물린다  
서울시, 年 2천만원

경찰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내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연간 2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사용해 왔으며 오는 30일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아래 경찰 측과 환수·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몇 달간 협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직 대통령에 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경호비를 위해서는 경호동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찰측의 주장은 고려,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北, 빠르면 1주일 이내 핵실험”

러 치안 당국자 밝혀… 靑기획관, 北문제 협의자 방미

북한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 극동 연해지방의 치안 당국자는 25일 북한이 빠르면 1주일 이내에 핵실험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치안 당국자는 이날 교도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세 번째 핵실험이 “1주일 안에 행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당국자는 북한 국경으로부터 100여km 떨어진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

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 기획관은 지난 22일부터 5월 1일정으로 뉴욕과 워싱턴DC를 차례로 방문, 미국 내 조야 인사들과 한반도 현안 및 양국 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방미기간 토마스 도널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국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이 구체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건강 치아관리 이렇게

26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북구 건강 체험 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치아 관리법에 대해 듣고 있다.

식품정책국의 크리스 월드롬 국장은 “광우병 검사건수 감소는 소 먹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다른 예방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다른 안전 예방 수단이 절대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검사를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으면 설사 방화벽이 완벽하다 해도 하的人来说에게 마련”이라며 “그처럼 상당 기간에 광우병 발생 사례가 없다가 이번에 다시 발생한 것은 기존 검역프로그램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농부부는 24일 캘리포니아 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용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미국 광우병 검사 건수 2005년 이래 90% 급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농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간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약 4만마리에 불과했고, 지난 2005년 같은 기간의 39만 9575마리에 비하면 급감한 것이다.

물론 농부부는 지난 2005년 그야말로 조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광우병 감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농부부는 지난 2005년 그야말로 조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광우병 감염 테스트를 하게 되면서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농부부는 24일 캘리포니아 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용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 가치가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경매나, 공매로 노출되지 않고도 가격은 더 안정된 확실한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으로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매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 또한 간단하고 쉽게 해결해내는 본 업체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 푼 쟁기지에 금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생생고객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지역의 사우나, 모텔, 오피스텔, 빌딩, 상가, 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슴隐隐기를 하고 계신다면 조용히 상담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믿고 맡겨만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가 및 사우나 (매매)  
지역 || 북구 삼각동 (시우나 현 설립증)  
면적 || 대지 약 900평, 건평 : 2500평  
지역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상가빌딩  
면적 || 대지 (1000평, 건평 4000평)  
지역 || 상무지구 사우나 현 설립증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 적합

지역 || 대지 약 1만평~2만평이상  
500평~10만평

지역 || 전용면적 50평~55평 (각 택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956-6660·010-2139-6255

FAX. 956-6608

###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

###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배우면서 투자하는 회비 330만원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투자자 모집 / 법적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 입찰대리

- 확실하게 입찰 대리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 매수 입찰대리 법원인가

오천경매 H.010-4667-9300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인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헌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매매교환 전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골프장

및 예식장을

금매매로 찾습니다.</